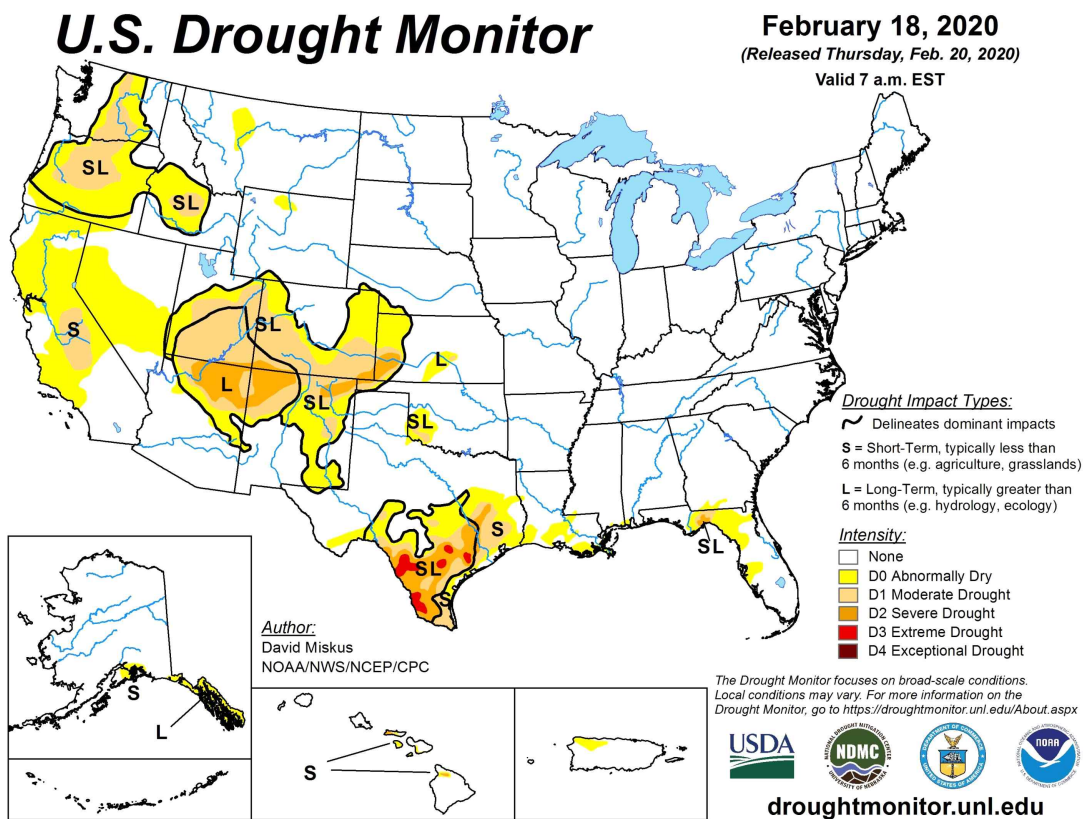


2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8)

□ 미국 기후 현황(2/16~2/22)

남부 전역에 걸쳐 추가로 내린 강우 (지역적으로 2~4인치 이상)로 들판은 계속 습하게 유지되었고 강의 홍수는 계속되었다. 멕시코만 연안 주 중부에서는 30~40년 만에 최고 수위로 올라간 강이 앨라배마, 톰빅비 및 펄 리버스 일부에 영향을 미쳤다. 2월 20일, 남부에 내린 강수 구역의 북쪽 주변은 눈으로 바뀌었는데 애팔래치아 산맥과 중부 대서양 연안 주들의 남부 지역에 쌓였다. 눈이 내린 기간은 다른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는 중서부 위쪽과 중앙 평원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반에는 남서부 지역에 상당한 양의 강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폭풍은 지난 2개월 동안 최소 강수만 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을 다시 우회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에 따르면 시에라 네바다의 주요 유역 지역은 전형적인 2월 하순 설피빙원의 평균 수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일부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우세했지만 일부 서부 지역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간헐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부 와이오밍 및 주변 주들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 F 이상 낮았다. 뉴 잉글랜드 북부, 중서부 위쪽 및 중대서양 남부 지역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배했지만 미국 중부와 동부 나머지 지역은 평년 근처 또는 그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했다.



□ 세계 기후 현황(2/16-2/22)

■ 유럽: 북유럽 전역은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고 불안정한 반면 남부 재배 지역은 대조적으로 건조 조건이 증가하고 있었다.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제트 기류에 의해 촉발된 매우 강력한 일련의 저기압 지역들 중에서 또 다른 저기압은 북유럽에 폭우를 내렸고 고지대에는 눈을 내렸다. 태풍 급의 강풍, 큰 파도 및 국지적인 홍수가 해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유럽 대륙의 북쪽 절반에는 총 10~250 mm의 강수량이 있었다. 지역적으로 극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영향은 양호했다. 북유럽과 중유럽의 수분 공급량은 겨울 작물을 녹화하기에 충분하거나 풍부했다. 특히, 중부, 북부 및 동부 유럽의 많은 지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10° C 높았으며, 7일 평균치는 5° C보다 높아서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평년보다 최대 6주 전에 겨울 작물들이 휴면을 깨 것으로 보인다. 겨울 작물이 계절을 벗어나 일찍 녹화되는 것이 당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과 유채는 내한성을 잃었기 때문에 현재는 추위에 훨씬 더 취약하다. 한편 폭풍의 경로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중해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가뭄 문제는 이탈리아, 그리스 및 서부 발칸 반도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60일 총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평년 대비 25% 미만으로 줄었다. 스페인에서는 수분 부족도 증가했지만 초겨울에 내린 비 덕분에 겨울 곡물들이 단기 건조를 더 잘 견딜 수 있었다.

■ 호주: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대체로 15~50 mm)가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가뭄을 추가로 해소했고 지역 저수지의 수위를 더욱 올려주었다. 비록 느리지만 겨울 곡물 파종 (일반적으로 4월 중순에 시작)에 앞서서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꾸준히 보충하고 있었다. 이 비는 미성숙 관개 여름작물들의 보충수 요구량도 계속 줄여 주었다. 그러나 일부 여름 작물들은 성숙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날씨가 좀더 건조해야 건조 작업을 돕고 작물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강우가 건조지 여름 작물들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재배 초기의 심한 폭염과 건조 때문에 작물 전망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어두웠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 1° C 높았고 최대 기온은 대체로 30도대에 있었다.

■ 아르헨티나: 대체로 띄엄띄엄 비가 내렸던 지난 주에 이어서 광범위하게 내린 국지적인 강한 소나기가 미성숙한 여름 곡물, 유지작물 및 면화의 발달을 위해 시기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라 팜파와 총 10 mm 미만을 기록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 기록된 강수량은 최소 25 mm 이상이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 C 낮았고 좀더 습한 양상이 동반되었다. 다만 라 팜파 남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은 30도대에 도달했으며 전통적으로 더 따뜻한 먼 북쪽의 농업 지역 (특히 포모사)에서는 40° C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2월 20일 현재, 36% 수확되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 (34%)이었는데 대부분 일찍 파종한 차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및 산타 페의 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진전 덕분이었다.



■ 브라질: 주요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 생산 지역에 건조 포켓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기는 했지만, 브라질의 주요 여름작물 지역 전체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중부와 북동부 지역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 북동부에서부터 피아우이와 마란하오를 지나기까지)에서는 총 강우량이 약 10~25 mm 이상이었고 몇몇 지역만 10 mm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다.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여 영양 생장 중인 2차 작물들의 증발산율을 높게 유지하였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21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는 콩이 73% 수확되었고 옥수수는 80%가 파종이 완료되었다. 브라질 남부 전역에 뿌려진 가뭄거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 (5~25 mm) 덕분에 제철 농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2차 작물 옥수수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수분량이 제한적이었다. 여름철 폭염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30도대에 도달)으로 날씨는 대체로 더 건조했고 증발로 인한 손실은 높게 유지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월 17일 현재 첫 작물 옥수수와 콩 수확이 각각 23%, 22% 완료되었다. 또한 2차 작물 옥수수는 32%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2월 20일 현재, 89%의 옥수수가 생식기-종실비대기에 도달했으며 46%의 옥수수가 이미 수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콩의 92%가 생식기에 도달했지만 지금까지 1%만 수확되었다.